



## 김금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 파괴의 세기, 인간의 세기

1900년대를 떠나 보내고 2000년대를 맞았다. 한쪽에서는 변함없는 시간의 흐름에 지나친 의미를 신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견해를 던지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새로운 천년이나 새로운 세기가 갖는 그 변화의 실상을 중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아무튼 새 천년이나 새 세기의 도래를 두고 감당하기 어려울만큼의 큰 전환으로 인식하는 것도 문제이려니와, 새 천년이나 새 세기가 몰고 올 급격한 변화들을 애써 외면하려 해서도 안될 일이다. 진부한 얘기가 될지는 몰라도 변화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을 위한 길을 바로 찾는 것이 언제나 피할 수 없는 과제라 할 것이다.

### 희망을 낳고도 이상을 깨뜨린 파괴의 세기

2000년을 맞으며 영국의 음악가 예후디 메뉴인이 한 말이 불현듯 떠오른다. “20세기는 인류가 품어온 희망 가운데 가장 큰 희망을 낳고는 모든 환상과 이상을 파괴해버렸다.” 20세기를 파괴의 시대로 규정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듯 하다.

20세기가 도래하기 직전, 그러니까 19세기 말에는 끝없는 낙관주의가 흘러 넘쳤다고 한다. 20세기에는 민주주의가 완전한 형태로 실현되고, 과학과 발견의 실질적인 진보가 진행되며, 평화가 마냥 지속될 것이라는 인식이 넓은 공감을 얻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인류가 미래를 정복할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는 얘기다.

지나온 20세기를 되돌아 볼 때, 역사 현실은 어떠했는가.

이 세기는 인류의 오랜 역사에서 가장 파괴적인 시기였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인류는 이전에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을 치렀다. 세계가 다 함께 경험한 대재앙이었다. 그것은 분명 '파국의 시대'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세계대전의 밑바닥 깊숙이 깔린 뇌관은 다름 아닌 자본의 치열한 쟁투였다. 또 하나 파괴의 세기를 장식한 것은 사람들을 전율로 빠뜨린 파시스트들의 대량학살이었다. 그것은 인류에 대한 씻을 수 없는 죄악이었다. 이런 사실을 두고 프랑스 생태학자 르네 뒤몽은 "그것은 학살과 전쟁의 세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표현한다.

세계대전과 파시즘의 광기가 활기를 치는 가운데,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주의 혁명이 화산과도 같은 불길을 터뜨려 자본주의 체제의 밑둥치를 뒤흔들었다. 그런 점에서 20세기는 '혁명의 세기'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혁명의 그 뜨거웠던 기세는 20세기가 다 가기 전에 기반의 균열을 보였다. 한편으로 20세기는 전례 없는 경제적·과학적·기술적 성장의 세기였다. 세기 말에 들어서는 '지구촌화'와 '신자유주의'의 거대한 흐름이 지배와 종속, 빈곤과 불평등을 확대·심화하고 있다. 무척이나 불길한 예고로 보인다.

이같은 세기적 변화는 '자본의 시대'를 직접 반영한다. 반면에 20세기가 이런 자본운동에 대응하는 '노동운동의 세기'라는 데에도 큰 이의를 던지지 않는다. 말하자면 자본의 이윤증식을 위한 끝없는 탐욕, 자본운동의 팽창이 빚어낸 유례없는 세계대전, 파시즘이 저질러 잔혹한 학살행위, 제국주의가 수행한 저주스런 식민통치 등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줄기찬 저항과 도전이 그런 사실을 반증한다.

## 끝나지 않은 억압과 저항의 역사

20세기 한반도 역사는 억압과 저항으로 점철했다. 이 땅에서 전개된 20세기는 일제 강점에서 출발했다. 근 40년에 걸친 식민지 통치 시기는 민족사의 정상적 발전을 가로막은 '파국의 시대'였다. 이 시기에 전개된 저항의 큰 흐름은 민족해방투쟁이었다.

일제 패망과 2차대전 종료 이후, 한반도는 외세의 힘에 의해 남북으로 분단된 채 미군정이 곧 이어 들어서게 되었다. 이 시기 노동자들의 총파업과 민주항쟁은 생존권의 확보를 위한 절박한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민족의 자주와 통일 그리고 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이승만 정권이 출범한 뒤 이태 뒤인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났다. 전쟁은 이 시대를 산 민족에게 엄청난 비극을 연출했고, 전쟁 이후 진행된 광포한 정치적 탄압과 반공체제·분단체제의 공고화를 가져온 직접적 계기로 작용했다.

이승만 독재권력은 1960년 3, 4월 민주항쟁으로 무너지고, 민족·민주운동이 거대한 강물처럼 큰 흐름을 이루면서 힘찬 전진의 모습을 보였다. 외세와 군부는 쿠데타로 이에 맞섰다. 결국 반동의 시대가 한 세대에 걸쳐 기승을 부리게 되었다. 군사 파쇼는 민주주의를 짓밟고 반공을 앞세워 민족분단의 고착화를 불렀을 뿐만 아니라 종속과 독점의 경제구조를 구축했다. 더욱이 1980년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는 광주민주항쟁을 총칼로 누르고 등장했다. '반역의 시대'가 펼쳐진 것이다.

1987년 6월의 민주항쟁과 7~9월의 노동항쟁은 군사 파쇼의 기반을 허물어뜨리고 반역의 시대를 마감하게 한 계기가 되었다. 1990년대 10년 동안에도, 역사의 전진을 가로막으려는 수구적 지배세력과 진보와 변혁을 추구하는 노동·민중 세력 사이에 벌어진 갈등과 대결, 모순과 충돌이 지속되었다.

### 침체와 고통을 겪은 '노동운동의 세기'

지난해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오스트리아 린츠에서 열린 제35차 국제노동사학자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에서 에릭 홉스봄은 20세기를 '노동운동의 세기'로 규정했다. 노동운동이 자본주의와 국가와의 '공존'을 태도로 삼아 비약적으로 발전한 사실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홉스봄은 "강압과 테러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 한, 노동자계급이 존재하

는 모든 사회에서 노동운동이 발전한다"며 노동운동을 자본주의체제의 필연적이며 실질적으로 불가피한 사회현상으로 규정했다.

그는 1900년 제2인터내셔널 대회 이후, 국가와 자본주의를 상대로 한 혁명적 투쟁을 청산한 노동운동이 사회민주화를 비롯하여 노동환경 개선, 노동자 생활수준 향상, 사회복지제도 확충 등을 이룩한 성과를 중시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이미 『공산당선언』에서, 계급으로서 노동자 조직은 전국적 정당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확증한 바 있는데, 이는 두 사람의 증대한 공헌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두 사람의 깨달음은 노동운동만이 아니라 근대적 정치구조 발전에도 엄청난 역사적 파급효과를 갖는다고 했다.

홉스봄은 "제2인터내셔널은 제3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수정주의나 사회민주주의 노선의 토대가 없었다고 설명한다. 그는 또 "1970년대 이후에는 최소한 두 곳에서 100년 전 유럽 노동운동에 비견할 만한 대중적 노동운동이 성장한다. 브라질의 노동자당과 한국의 대중적 노동조합운동이 그것이다"면서, "제3세계 노동운동이 배후에 어떤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었는지 간에 이들은 대부분 20세기의 평화로운 민주정치보다 정변과 혁명, 거리 투쟁과 무장이 익숙했던 나라들에서 일어났다"고 지적한다. 한국에서 진행된 노동운동의 역사는 어떠했는가.

한국 노조운동은 1898년 성진본정부두노조 설립에서 출발해 100년을 경과했고, 1920년 '조선노동공제회'의 결성을 근대적 노동운동의 시작으로 본다면 80년의 역사를 지닌다. 노동운동은 일제 식민지 통치에서부터 미군정, 한국전쟁과 자유당 독재정권, 1960년 3.4월 민주항쟁, 박정희 군사정권, 1979년 유신 몰락, 전두환·노태우 파쇼정권, 민주화 이행을 거치면서 전개되었다.

이 과정에서 노동운동은 노동자계급의 자유와 권리 확보와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지위향상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민족해방과 민주주의 실현, 민족 자주의 확립과 민족통일, 사회정의와 민중의 생존권·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즐기치게 별여왔다. 침제와 교양, 승리와 패배, 정제와 비약을 겪어야만 했다. 이 땅의 역사에서도 '노동운동의 세기'

는 어김없이 진행되었다.

## 새 천년을 맞으며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른다. 우리는 역사가 우리를 이 지점까지 몰고 왔으며, 왜 그러했는지를 알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한가지는 분명하다. 인류가 인정할 수 있는 미래를 가지려 한다면, 그것은 과거나 현재를 연장함으로써 이루어질 수는 없다. 그러한 기반 위에서 세 번째 천년기를 건설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실패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실패의 대가는, 즉 사회를 변화시키지 않을 경우의 결과는 암흑뿐이다.” 에릭 홉스봄의 『극단의 시대: 20세기의 역사』 마지막 구절이다.

인류는 새 천년, 새 백년, 새해를 맞는다. 이런 시점에서 환호의 목소리는 요란한 듯 하나 도무지 실제의 무게를 느낄 수는 없다. 오히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우려만이 감돌뿐이다. 변화와 발전의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빨라 방향감각마저 잃을 지경이다. 어쩌면 낡은 가정들은 대부분 사멸한 상태에서 새로운 가정들이 아직 제대로 형태를 갖추지 못했는지도 모른다. 낡은 가정의 죽음은 가치체계의 위기를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처럼 삶의 궁극적인 목적에 관해 왜라는 의문을 갖고 다가선 적도 없었을 것이다. 분명 갖가지 혼돈 속에서 새로운 세기를 맞게 된 것이다.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현재를 냉철하게 숙고해야 한다는 말은 옳다. 독일에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송두울교수는 그의 『21세기와의 대화』에서 이렇게 주장한다. “미래를 전망하는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불안도 커지게 마련이고, 이에 따라 우리는 관습적 사고에 더욱 매달리게 된다. 이것이 바로 교조주의적 사고와 행동양식이다. ‘참선하는 이가 화두를 의심하지 않으면 큰 병이 된다’ (參禪者不疑言句 是爲大病)는 불가의 말처럼, 미래의 전망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지금까지 풀었던 사고와 보냈던 행동에 대해서 더 큰 의심을 해보아야 한다.” 21세기 예측에서 떠오르는 불확실성과 혼돈 그리고 우려는 따지

고 보면 지배계급·지배세력·지배블록이 세계정세와 상황을 주도한다는 가정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현재로서 이 가정은 정당하다. 지구촌화의 폭넓은 진행, 신자유주의의 팽창, 민주주의의 질서의 왜곡, 급속한 기술혁신, 통합 가속화 추세의 지역화, 빈곤의 증대와 빈부격차의 심화, 대량실업 상존의 노동시장 구조 등을 둘러싼 전망이 그렇다.

지배하는 쪽이 추구할 이런 가정들에 대응해 피지배쪽이 지향할 목표는 다를 수밖에 없다.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일하면서 안온한 생활을 누리는 것, 보편적인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 경제발전을 지속하고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 지구적 차원에 걸쳐 환경을 보호하는 것, 국가간 지역간의 격차를 줄이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 산업정책이나 기업경영에서 경제민주주의와 노동의 인간화를 실현하는 것, 사회적 불평등과 빈곤을 해소하는 것, 사회 정의와 도덕적 가치를 바로 세우는 것, 평화를 유지하고 국내외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지향 목표는 인류의 보편적인 소망일 수 있고, 그 소망의 줄기찬 추구가 곧 미래의 희망일 수 있을 터이다. 이렇게 본다면, 21세기는 지배계급·지배세력·지배블록이 빚어내는 역사의 진보에 대한 반동과 피지배계급·피지배세력·피지배블록이 추구하는 변혁 사이의 격심한 갈등과 충돌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 불확실성 속의 노동운동전망

“노동의 생애는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 뭐 특별히 새로울 것도 없으며 옛날부터 노동의 생애는 늘 불확실성으로 가득했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현재의 불확실성은 아주 새로운 것이다. 여기에는 한 사람의 생애와 미래의 전망을 속밭으로 만들 수 있는 끔찍한 재앙이 담겨 있다. 이 재앙은 세력을 모으거나 연합해서 저항하거나, 또는 함께 토론하고 의견을 모으고 수단을 강구해서 막아볼 수 있다든지, 최소한 저항하고 어떻게든 바꿔볼 수 있는 그런 재앙이 아니다. 가장 두려운 재앙은 아주 기이한 논리를 내세

우거나 아니면 아예 논리도 없이 닥치는 대로 그 희생자들을 때리고 발길질하며 제멋대로 이들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 불행한 운명에 빠지고 또 누가 구원받을 것인지 예견할 도리가 없다. 오늘날의 불확실성은 극심하게 개별화하는 힘이다.” 제35차 국제노동사학자대회에서 발표한 지그문트 바우만의 「노동의 대두와 몰락」에 나오는 글 대목이다.

21세기를 맞을 노동운동이 갖가지 중대 도전에 맞닥뜨리게 되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노동운동을 둘러싼 상황과 정세의 급격한 변화 그 자체가 하나의 큰 도전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 자본과 국가권력의 새로운 통제와 지배 형태가 엄청난 도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노동자계급의 요구 확대나 요구의 다양화가 역시 노동운동으로서는 중대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런 도전들 말고도 노동운동 앞에 다가설 최대의 도전은 ‘극심한 개별화’를 극복함과 동시에 노동자계급의 잠재적 성장 역량을 구체적인 운동의 발전 역량으로 발현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에릭 홉스봄은 노동운동의 발전을 낙관적으로 전망한다. 그는 「노동운동의 세기」라는 논문에서 이렇게 밝힌다. “우리는 오늘날 노동운동사의 새로운 단계에 와 있다. 노동운동은 아직 존재한다. 브라질과 한국의 예가 보여 주듯이, 신흥 산업국가에서 노동운동은 아직 성장기에 있다. 그곳에서는 아직 산업노동자층이 축소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 구산업 세계의 부유한 국가들에서도 노동운동은 지속될 것이다.” 그는 그 근거로서 첫째 맑스가 예언했듯이 최소한 피고용자로서 이해관계가 고용주의 것과 본질적으로 다른 임금·봉급 소득자가 다수 존재하고 있고, 둘째 제급으로 불리든 아니든 간에 사회계층, 즉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회집단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셋째 국가가 소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운동은 계속된다는 것이다.

### 노동운동의 새 지평을 열기 위해

한국 노동운동도 새로운 세기를 맞아 거대도전에 직면하여 주체적인 주요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놓여 있다. 산별노

조 건설이라는 조직형태 개혁을 비롯하여 제도·정책 개선을 위한 공동투쟁·통일투쟁의 전개, 정치세력화의 구체적 추진, 21세기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운동 노선과 운동기조의 설정 등이 그것이다. 결코 만만한 과제가 아니다.

이런 과제의 해결은 노동운동의 자기개혁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보다 먼저 노동운동의 권위를 확립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판단된다. 노동운동의 권위는 조직역량, 투쟁역량, 정치역량, 운동이념 등 여러 요건들에 의해 규정된다. 다음으로 노동운동의 주체적 개혁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인다. 조직운영의 체계화·합리화·집중화 등이 필요하고, 노조민주주의의 충실한 이행과 자주적 규율의 확립을 위한 노력이 필수적인 요건이 될 것이다. 그리고 노동운동의 풍토개혁이 요구된다. 마치 황량한 겨울 대지와도 같이 매말라 보이는 노동운동의 판세를 인간에 대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생명력 넘치는 '운동판'으로 바꾸어내는 일이 더할 데 없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21세기 한국 노동운동 발전 전망은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한 추진주체의 성장이라는 의미도 함께 지닌다. 새로운 세기를 '인간의 세기', '희망의 세기'로 이끌기 위해서는 노동운동의 발전이 필수적 요건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세기가 던지는 불확실성이 사람들의 심증을 답답하게 만들고 있듯이, 노동운동 또한 불확실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우려를 떨치는 데는 방향성의 상실에서 비롯되는 무관심을 극복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엘리 위즐의 「무관심 극복의 필요성」이라는 글 대목을 떠올린다. "사랑의 반대는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다. 또한 이것은 다른 개념에도 적용된다. 교육의 반대는 무지가 아니라 무관심이다. 이름다움의 반대는 추함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삶의 반대는 죽음아 아니라 삶과 죽음에 대한 무관심이다." ❖